

보도일시 (인터넷) 2024. 4. 29.(월) 11:00,
(지면) 2024. 4. 30.(화) 조간

배포 2024. 4. 29.(월) 06:00

원양 오징어 초도물량 1만 5천 톤 공급 개시

- 원양 오징어 생산량 전년보다 약 60% 증가하며 생산 원활, 국내 오징어 수급 불안 해소 전망 기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30일(화) 오전 10시 부산 감천항에서 원양 오징어 초도물량 하역 및 공급 현장을 점검한다.

포클랜드에서 주로 생산되는 원양 오징어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생산이 다소 부진했으나, 2월부터 어황이 개선되면서 4월 3주(~4. 20.) 기준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증가한 약 5만 2천 톤*으로 생산이 원활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9천 톤보다 6천 톤 늘어난 약 1만 5천 톤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생산 물량도 순차적으로 국내에 공급되어 오징어 수급 불안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해수부 조업감시센터 어획보고 기준

이날 송명달 차관은 원양산업협회에게 원양 오징어 생산 및 공급 동향을 보고받은 후 원양 오징어가 운반선에서 하역 후 소비처로 공급되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한다. 송명달 차관은 현장에서 오징어 물가안정을 위해 원양 선사 관계기관에 신속한 공급을 당부할 예정이다.

송명달 차관은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대중성어종인 오징어는 그간 생산이 계속 부진했으나, 올해 원양 오징어 생산이 원활해지면서 수급 불안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내에 반입된 원양 오징어가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적정 물량을 비축하여 국민들께서 부담없이 오징어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44-200-5440)
	유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정재훈 (044-200-5447)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고경만 (044-200-5360)
	원양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경정 (044-200-5366)

◆ 최근 오징어 수급 및 물가 동향은?

- 작년 한해 전 세계적인 오징어 조업 부진의 여파로 우리 연근해와 원양 수역에서도 오징어 생산이 부진했습니다.
 - '23년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23,343톤으로 전년(36,578톤) 대비 △36.2%, 원양 오징어 생산량은 31,151톤으로 전년(48,133톤) 대비 △34.5% 감소했습니다.
- 수급 불안으로 인해 '23년 오징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2.5% 상승하였고, 올해도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 오징어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비 : ('24.1월) 12.0%, (2월) 14.4%, (3월) 17.8%

◆ 오징어 가격 안정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그간의 노력은?

- 해양수산부에서는 오징어 수급 안정과 체감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작년부터 매월 마트·온라인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할인행사에서 오징어를 의무할인품목으로 지정하여 최대 50%(정부 2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정부 비축오징어(원양산)을 지속 방출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가격안정 노력에 힘입어 올해 4월까지 오징어 소비자가격은 작년 대비 3.1% 수준에서 상승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 '24.1~4월 원양산 오징어(냉동, 中) 4,161원/마리 ↔ '23년 4,035원/마리(aT KAMIS)

◆ 원양산 조업 현황 및 공급 재개에 따른 기대효과는?

- (조업상황) 4월 20일 현재 기준 이번 어기('23.12~) 오징어 생산량은 약 5만 1천5백톤으로, 전년 동기(3.23만톤) 대비 약 60% 증가했으며 평년 생산량(4.21만톤)에 비해서도 22% 가량 증가했습니다.
 - 어기(12~5월) 초반에 조업 수역 수온이 낮게 유지되면서 생산이 약 2개월 지연되었으나, 2월말부터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현재까지 조업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공급효과) 4월말~5월초까지 당초 반입 예정물량 9천톤보다 6천톤 이상 늘어난 1.5~1.6만톤 가량의 초도물량이 국내로 반입되어 주요 소비처로 공급되면서 그간 오징어 공급 부족으로 누적된 오징어 대기수요가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앞으로 평년 대비 늘어난 생산물량이 순차적으로 국내에 공급되면서 도매 및 소비자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